



원청교섭

비긴즈

2026-7호

진짜 사장을 찾아서

발행일 2026.9.10.(목) | 발행처 금속노조 원청교섭 투쟁본부 | 발행인 박상만 금속노조 위원장 | 편집 정책실 ☎02-2670-9502 | SNS ○ 금속노조

노조도 무시 노동위도 무시 천방지축 동희오토 못 말리는 노동위

9월 3일 동희오토분회가 충남지노위에 동희오토원청 대상 쟁의조정신청을 접수했다. 동희오토 원청은 6월 중노위 원청사용자성 인정 후 진행한 7차례 교섭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다. 원청은 노동위 교섭요구사실공고 명령 역시 무시하며 사안을 소송으로 끌고 갔다. 한편, 14일 충남지노위 조정 결정이 나올 예정이다. 충남지노위는 동희오토 원청의 노동위원회 결정 부정과 교섭 절차 개시 거부 사실을 분명히 확인해야 한다. 쟁의조정제도와 개정 노조법 취지-목적에 맞는 현명한 결정을 기대한다.

균열은 시작됐다 원청교섭 물고든다 한국타이어 원청교섭 시작

한국타이어 사내하청노동자들이 원청과 교섭을 시작한다. 대전충북지부 한국타이어사내하청지회가 9월 3일 금산공장에서 교섭원칙에 합의하고 9월 15일 상건례 일정을 확정했다. 한국타이어사내하청지회는 "원청교섭이 결코 불가능한 꿈이 아니라 우리의 투쟁으로 쟁취할 수 있는 현실"이라며 "올해 안에 원청 단체협약을 쟁취하겠다"고 밝혔다.

하라는 교섭은 안 하고 불법 대체근로 투입 현대글로비스 원청 파업 파괴 중범죄

현대글로비스 원청이 하청 노동자 파업을 무력화하기 위해 당근마켓으로 불법 대체근로를 모집하고 실제 현장에 투입해 논란이다. 하청 업체의 합의 파기로 파업에 나선 현대글로비스 하청 노동자들은 9월 2일 현장 인근에서 불법 대체 인력을 발견하고 투입을 저지했으나, 원청은 3일 인력 투입을 강행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 1항은 사용자가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 수행을 위해 사업과 관계없는 사람을 채용하거나 대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주지청 노동감독관은 2일 현장에서 불법 대체인력을 목격했으나,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600명 조합원의 단결로 원청교섭 투쟁에 불을 지피자!



강현규 대전충북지부 한국타이어사내하청지회장

한국타이어 대전공장과 금산공장에서 피땀 흘려 타이어를 만들어온 우리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더 이상 힘없고 억울한 하청노동자가 아닙니다. 몇 년 전 노동조합이 없어 하루아침에 260명 동지가 일터를 떠나야 했던 뼈아픈 일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대전과 금산 8개 업체에서 600명에 달하는 조직으로 성장했고, 운반·사상·물류 등 곳곳에 조합원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확인한 원청의 실질적 지배

최근 불법파견 1심 소송에서 당당히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한국타이어가 생산 계획에 따라 하청 노동자들에게 상당한 지휘와 명령을 내렸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제 한국타이어는 모든 문제를 하청업체 뒤로 떠넘길 것이 아니라,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노동조건에 대해서는 직접 교섭하고 책임져야 합니다.

우리는 힘이 있다

원청이 계속해서 책임을 회피하고 교섭을 기만한다면 행동할 힘도 있습니다. 우리는 재료를반

물류, 사상 등 생산의 핵심 연결 공정에서 조직력을 키웠습니다. 한국타이어 생산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힘입니다. 우리 목표가 무조건 공장을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사측이 우리의 조직력과 노동3권을 인정하고 책임 있게 교섭에 나서는 것이 우선입니다.

물고기를 넓혀 투쟁의 무기로

우리가 원청교섭을 통해 요구하는 것은 대단한 특혜가 아닙니다.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기본적인 시간과 공간, 안전하게 일할 권리, 합리적인 작업강도와 인력운영, 차별 없는 임금과 복지, 고용불안 없이 일할 권리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최근 금속노조 내 다른 지회 동지들이 마침내 원청교섭을 성사했다는 벅찬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굳게 닫혀 있던 원청교섭의 벽에 마침내 거대한 균열이 생긴 것입니다. 이는 원청교섭이 결코 불가능한 꿈이 아니라 우리의 투쟁으로 쟁취할 수 있는 현실임을 명백히 증명합니다.

이제 우리 한국타이어 사내하청지회가 그 균열을 활짝 열어젖히겠습니다. 한국타이어 원청은 똑똑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 600명 사내하청 조합원들은 대전과 금산에서 하나의 지회로 굳건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투쟁은 단지 우리만의 것이 아니라, 아직 원청의 벽 앞에서 싸우고 있는 모든 노동자들에게 희망과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전체 조합원이 하나로 뭉쳐 기필코 올해 안에 원청 단체협약을 우리 손으로 쟁취해 냅시다! 우리의 승리가 다른 모든 지회의 승리를 앞당기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연대하며 싸워나갑시다! 투쟁!